

경기침체 장기화에...전남 창업기업 5분기 연속 감소

1분기 9620개, 전년비 10.8% 감소...광주도 9.4% 줄어 전국 60세 이상 창업은 역대 최다...전체 비중 13% 넘어서

고금리 장기화 및 증시 불안정성에 따른 투자 둔화 등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지난 1분기 전남지역의 창업기업 수가 다섯 분기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남지역 창업기업 수는 지역산업의 주요 업종인 농업, 제조업 등이 1년 전보다 두 자릿수 낮은 수치를 기록하는 등 우울한 지역경제의 상황이 반영됐다. 11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 1분기 전남지역 창업기업은 9620개로, 전년 동기(1만 780개) 대비 1160개(10.8%) 감소했다. 이로써 전남지역 창업기업 수 감소세는 지난해 1분기 이후 5분기 연속 이어지고 있다. 업종별로 보면 전남지역의 주요 업종인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관련 창업기업이 지난 1분기 기준 479개로, 전년 동기(570개)보다 15.9% 감소해,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이어 제조업(314개·15.4%↓), 서비스업(7241개·9.2%↓), 건설업(702개·2.8%↓) 순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업에서는 정보통신업 분야 창업기업이 120개로 1년 전보다 35.5% 떨어졌고, 도소매업(2529개·20.5%↓), 부동산업(561개·19.7%↓),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268개·13%↓), 숙박 및 음식점업(1456개·11.9%↓) 등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광주시 역시 창업기업 수가 대폭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광주시 창업기업 수는 지난 1분기 기준 7817개로 전년 동기(8632개)에 견줘 815개(9.4%) 줄었다.

업종별로는 서비스업이 7051개로 전년(7825개)에 비해 774개(9.9%) 줄어 가장 많이 감소했고, 건설업(-9.3%), 제조업(-6.3%) 등이 뒤를 이었다. 서비스업 중 정보통신업이 159개로 1년 전보다 37.6% 감소했고, 부동산업(656개·-17.8%), 숙박 및 음식점업(1041개·-16.6%), 도매 및 소매업(2701개·-14.6%) 등 대부분 분야에서 하락했다. 한편, 지난 1분기 전국 창업기업 수는 30만 6000개로 전년보다 8.1% 감소해 지난 2022년 1분기 이후 9분기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특히 인구 고령화 추세 및 경기침체로 인한 젊은 세대의 창업 포기 등으로 60세 이상 고령층의 창업

비중이 사상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다. 전국 창업기업을 연령별로 보면 40대가 7만 9000개(25.8%)로 가장 많았고, 30대(24.7%), 50대(21.4%), 60세 이상(15.2%), 30세 미만(12.6%) 순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업을 제외하면 30대(26.1%)가 가장 높았고, 40대(26.0%), 50대(20.4%), 60세 이상(13.6%), 30세 미만(13.6%) 순으로 높았다. 지난 1분기 창업기업 수는 부동산업 제외 시 60세 이상 고령층에서 3만 8000개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전체 대비 차지하는 비중도 처음으로 13%를 넘겨 인구 고령화 추세가 뚜렷한 모양새다. /정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GGM 경형 전기차 ‘캐스퍼 일렉트릭’ 티저 이미지 공개

27일 부산 모빌리티쇼서 첫 선

광주글로벌모터스(GGM)가 생산하는 경형 전기차 ‘캐스퍼 일렉트릭(CASPER Electric)’의 티저 이미지(사진)가 11일 공개됐다. 현대자동차에 따르면 캐스퍼 일렉트릭은 캐스퍼의 전동화 모델로 기본 모델의 단단한 이미지를 계승하면서도 전동화 디자인 요소를 더해 차별화된 모습을 갖췄다. 티저 이미지를 통해 엿본 캐스퍼 일렉트릭은 견고하면서도 간결한 윤곽이 가장 먼저 돋보인다. 이어 전기차만의 차별화된 픽셀 그래픽이 적용된 전면부 턴시그널 및 면발광 DRL은 후면부의 ‘데일&스탑’ 램프와 함께 미래지향적인 통일감을 보여준다. 또한 현대차는 캐스퍼 일렉트릭의 클래스부터 티저 이미지를 통해 1회 충전 주행 가능거리 315km를 공개하며 상품성에 대한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현대차 관계자는 “기준에 없던 새로운 차급으로 탄생한 캐스퍼 일렉트릭은 국내 전기차 시장에서 대중화를 선도할 기준이 되는 차가 될 것”이라며



“캐스퍼만의 독창적인 캐릭터에 독보적인 상품성을 엮어 고객의 기대를 뛰어넘는 전동화 경험을 선사하겠다”고 밝혔다. 현대차는 오늘부터 온라인 티저(<https://casper.hyundai.com/vehicles/ev/teaser>)를 통

해 캐스퍼 일렉트릭에 대한 대고객 사전 정보 알리기 이벤트를 실시한다. 한편 현대차는 오는 27일 부산 모빌리티쇼 현장에서 캐스퍼 일렉트릭을 고객들에게 최초로 선보일 계획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KDI “경기 다소 개선...내수는 회복세 더덕”

7개월째 ‘내수 둔화·부진’ 판단

수출 호조세에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내수 둔화·부진’ 진단이 반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 KDI는 11일 발표한 ‘6월 경제동향’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높은 수출 증가세에 따라 경기보다 다소 개선되고 있으나 내수는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소비와 관련해서는 “대다수 품목에서 감소세를 이어가며 부진이 장기화하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KDI의 내수 둔화·부진 진단은 지난해 12월부터 계속되고 있다. 4월 소매판매(-2.6%·전년동기대비)는 전달(-3.4%)에 이어 감소세가 이어졌고 전달과 비교해 0.1%포인트 감소하며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 숙박·음식점업(-2.4%), 교육서비스업(-1.1%) 등 서비스 소비도 전달에 이어 둔화 흐름을 보였다. 4월 설비투자(-2.3%)와 건설기성(불변·

0.8%)도 부진한 흐름을 이어갔다고 KDI는 분석했다. 다만 KDI는 내수 부진에도 높은 수출 증가세가 지속하면서 경기 부진은 완화하고 있다고 봤다. 세계 경제가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는 등 대외 여건이 일부 개선되면서 반도체 수출의 강한 회복세가 유지됐다는 판단이다. 반도체의 수출도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고 분석했다. 5월 수출(11.7%)은 반도체 등 IT 품목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수입(-2.0%)은 내수 부진에 따른 소비재 수입 위축 등 영향으로 감소로 돌아섰다. 4월 고용은 제조업 회복세로 취업자 수 증가 폭이 전달(17만3천명)보다 확대(26만1천명)되는 등 양호한 흐름이라고 분석했다.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2.7%)도 둔화하고 있다며 고금리 기조로 수요 측 물가 상승 압력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공급 측 압력도 완화된 점을 이유로 들었다. /연합뉴스

2024년산 김 생산량 6% 늘어난 1억5천만송

해양수산부는 2024년산 김(마른김 기준) 최종 생산량이 1억4970만 송(한 송은 김 100장)으로 2023년산(1억4126만 송) 대비 6.0%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11일 밝혔다. 2024년산 김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달까지 생산됐다. 김은 생산이 늘었지만 일본과 중국의 생산 부진과 세계적인 인지도 상승으로 수출 수요가 늘어 산지 가격이 급증했다. 이에 따라 김 도매가격과 소비자가격은 강세를 보였다. 마른김 도매가격은 지난 4월 월평균 가격이 작년 동기보다 80% 치솟아 한 송 당 1만원 상당 1만원을 처음 돌파했다. 조미김 가격도 비싸져 일부 제품은 20개 묶음이 1만원이 넘는다. 이달 들어 동원F&B는 김 평균 가격을 15%가량 올렸으며 CJ제일제당은 지난달 김 가격을 11~30% 인상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광주신세계 23일까지 반달가슴곰 보호 팝업 수익금 보호단체 기부

광주신세계는 오는 23일까지 1층 이벤트홀에서 ‘문베어(반달가슴곰) 팝업’ 행사를 연다고 11일 밝혔다. (사진) 광주신세계는 응답 채취로 인해 고통받는 반달가슴곰의 실태를 알리고 보호단체를 통한 지원을 실천하기 위해 캐주얼 브랜드 ‘프로젝트엠’과 팝업을 마련했다. 프로젝트엠은 구조된 곰들이 지낼 보금자리를 마련하기 위한 캠페인 영상을 제작하는 등 유기동물 보호활동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캠페인으로 마련된 미니 방사장에서 적용하는 곰들의 모습을 SNS에 공개하며, 긍정적인 반응을 얻고 있다. 광주신세계와 프로젝트엠은 사유곰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행사 기간, 할인 판매 및 할인권 배포 등 이벤트를 진행한다. 문베어와 해변 캠페인을 테마로 한 각종 티셔츠와 잡화 등 다양한 상품들을 최대 7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또 팝업매장에서 10만원 이상 구매 시 프로젝트엠 매장에서 이용 가능한 할인권을 증정한다. 프로젝트엠은 이번 팝업매장 운영으로 얻은 수익금 중 일부를 보호단체인 ‘곰 보금자리 프로젝트’ 등에 기부할 예정이다. 김윤철 광주신세계 패션팀장은 “광주신세계 문

베어 팝업은 재미를 넘어 의미까지 더한 특별한 팝업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많은 고객들이 행사장을 방문해 야생동물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반달가슴곰과 관련된 풍성한 콘텐츠를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정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전남도 소상공인 상표·특허 지식재산 보호 지원

예산 소진시까지 연중 모집

전남도가 도내 소상공인들의 상호, 레시피 등의 아이디어를 상표, 특허,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으로 만들어 보호해주는 사업에 나선다. 상표 국내 출원 등록을 지원하고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에 그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뒷받침할 방침이다. 전남도는 11일 “2024년 소상공인 IP 역량강화사업과 지식재산 창출 종합패키지 지원사업에 참여할 도내 소상공인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IP 출원(상표) 지원사업’은 22개 시·군 소상공인이 보유한 상호, 레시피 등의 아이디어를 상표, 특허, 디자인 등의 지식재산으로 권리화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1건당 최대 60만원의 상표 국내 출원 등록 대리 비용과 출원 관납료를 지원한다. 지난해 236건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167건의 상표 출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식재산 창출 종합패키지 지원사업’은 지역

유망 소상공인의 브랜드와 디자인을 개발하고 권리 확보까지 종합 지원한다. 지원 기업당 2200만원(분담금 포함) 상당의 브랜드 및 디자인 개발 비용과 출원 비용을 지원한다. 지난해 6개 기업을 지원했으며, 올해 8개 기업을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신청은 연중 수시 접수하며, 예산 소진 마감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테크노파크 누리집(www.jntp.or.kr)과 전남지식재산센터 누리집(www.ripic.org/jeonnam)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수미 전남도 중소벤처기업과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소상공인이 보유한 지식재산의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그들이 보유한 상호, 브랜드 및 디자인 등 무형자산의 권리를 보호해 보다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영위토록 지원하겠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식재산 역량 강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5월 동행 축제, 매출 1조 3000억원 달성

광주·전남도 4억여원 판매고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한달간 진행된 ‘동행축제’가 1조 2974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고 11일 밝혔다. 광주·전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조종래)도 5월 동행축제 기간 동안 지역축제 등과 연계해 약 4억원의 매출을 달성했다. 먼저 광주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호남지역본부, 광주상인연합회와 함께 준비한 광주전통시장 우수제품판매전은 12개시장 20개 점포가 참여해 2500만원의 판매고를 올렸고, 1913송 정역시장 맥주축제는 하루 동안 매출 6000만원을 달성했다. 또 보성향대축제와 곡성세계장미축제 현장에서 지역 특산물 판매전을 개최해 각각

8700만원, 1억1000만원의 매출을 기록했다. 지역 향토기업인 베베에프와 쉐태봉, 커피북는 집 등은 자체 할인행사를 추진 1억1600만원을 올렸는데 커피와 방역마스크 등 자사 제품을 후원물품으로 제공해 지역과 상생하는 향토기업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밖에 곡성세계장미축제, 동명청년축제 등 축제현장에서 라이브커머스를 진행해 곡성 멜론, 서울각두기 설렁탕, 토란파이 등 우리지역 13개사의 우수한 제품이 전국에 소개됐다. 조종래 청장은 “28일간 살맛나는 동행축제를 위해 함께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면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전통시장에 큰 보탬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K-water 영·섬본부 홍수기 준비 태세 점검

한국수자원공사 영·섬유역본부(본부장 주인호)는 11일 ‘K-water 영산강물관리단’에서 홍수기 물 앞두고 댐 운영 계획과 준비사항 전반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사진) 회의에는 영산강-섬진강유역 댐·보 등 수자원시설물을 관리하는 본부 및 지사(단)가 참석해 홍수기 댐 운영계획, 댐 상·하류 하천 제방사상 조사 결과 등 홍수기 전 준비사항에 대해 종합적으로 논의했다. 특히 올해는 예년대비 153% 수준의 많은 강우가 지속돼 유역의 댐 수위 또한 높은 상황으로, 하류 홍수피해 방지를 위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홍수와 이수 측면에서 안전한 댐 운영 수위를 설정하고 홍수기 피해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주인호 본부장은 “현재 기후변화로 인한 기후 양극화에 따라 재난의 발생빈도와 강도가 날로 증가

하며 전 지구가 가뭄과 홍수로 몸살을 앓고 있다”며 “영·섬유역도 지난해 극심한 가뭄과 역대급 강우를 동시에 겪었으나, 철저한 사전준비와 관계부서간 협업으로 큰 피해 없이 안정적인 운영을 할 수 있었다. 올해도 철저한 대비와 빈틈없는 준비로 홍수로 인한 물재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705.32(+4.15)
↑ 코스닥	868.36(+3.65)
↓ 금리(국고채 3년)	3.341(-0.012)
↑ 환율(USD)	1378.40(+2.40)